

개도국 지역이슈 리포트

【지역이슈분석 2013-3】

2012. 3. 20.

차베스 이후 베네수엘라의 정세 및 석유산업 전망

목 차

I. 검토 배경	1
II. 정치 및 대외관계 분석	4
III. 석유산업 현황 및 전망	9
IV. 우리나라와의 관계 및 시사점	12

국별조사실

작성: 조사역 이주은 (3779-5712)
june@koreaexim.go.kr

확인: 팀 장 조양현 (3779-5707)
yhjo@koreaexim.go.kr



■ 지난 3월 5일,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이 암으로 사망하면서 14년 장기집권을 마감함. 차베스 대통령은 풍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대내적으로 강력한 국유화 및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하고 대외적으로는 중남미 반미 좌파연대를 이끌어 왔음. 이에 따라 포스트 차베스 시대를 맞이한 베네수엘라의 정치·대외관계, 석유산업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보고자 함.

I. 검토 배경

□ 차베스 대통령, 집권기간 중 강력한 좌파·반미정책 시행

- 차베스 대통령은 1998년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4선에 성공하여 14년간 장기 집권하였으며 특유의 카리스마로 국유화, 사회복지정책 강화, 신자유주의 반대 등을 특징으로 하는 차베스식 정치이념(Chavismo)을 주창·실천함.
- 강력한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하여 빈민층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이에 필요한 자금은 베네수엘라석유공사(Petróleos de Venezuela, S.A.: PDVSA)를 통해 조달함.
- 차베스 대통령은 빈민층에 무상교육 및 무상의료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휘발유·생필품 등을 무료로 보급함. 세계은행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의 빈곤율은 2003년 62.1%에서 2007년 33.6%, 2011년 31.9%로 하락함.
- 베네수엘라는 2004년 ‘미주를 위한 볼리바르 연맹’(ALBA)¹⁾을 창설했으며, 2005년에는 ‘페트로카리베’(PetroCaribe)²⁾를 설립하고 이들 국가에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석유를 공급하여 중남미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등 중남미 반미 좌파연대의 구심점 역할을 함.

1) 반미 성향의 중남미·카리브해 좌파 9개국 연합(베네수엘라, 쿠바, 에콰도르, 볼리비아 등).

2) 베네수엘라 외 카리브해 연안 17개국으로 이뤄진 석유 협의체로, 베네수엘라는 회원국에게 석유 수입액의 40%에 대해 2년의 거치기간 및 17~25년의 장기 상환기간을 부여하고, 나머지 60%에 대해서는 단기금융(연 이자율 :1%)을 제공함.



- 페트로카리베 주요 회원국은 도미니카공화국, 쿠바, 자메이카 등으로 회원국은 베네수엘라로부터 연간 70억 달러에 달하는 석유를 공급받고 있음.

<그림 1> 중남미 정권 현황 요약



자료: 연합뉴스.

□ 포스트 차베스 시대 베네수엘라의 정세변화가 이슈로 부상

- 차베스의 사망으로 베네수엘라의 정책방향이 향후 어떻게 변화할지 등의 여부, 특히 석유산업 정책 및 미국 등 대외관계 변화 여부가 주요 관심사로 대두됨.



- 세계 1위의 석유 매장량을 보유했으면서도 차베스 대통령 집권기간 중 외국인 투자 및 생산량이 위축된 베네수엘라 석유산업은 향후 세계 에너지 시장 및 국제유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
- 또한, 2005년 미국이 추진한 중미자유무역협정을 저지하는 등 미국에 대항하여 중남미 국가를 집결시키는 역할을 한 차베스의 사망은 베네수엘라 뿐 아니라 중남미 주변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표 1> 차베스 연표 요약

연월	주요 사건
1954.7	바리나스주 사바네타에서 출생
1975	육군사관학교 졸업
1982	정치그룹 '볼리바르 혁명운동 200' 결성해 반정부운동
1992	공수부대 중령 신분으로 쿠데타 감행, 실패
1994	출소 후 대중정치인 변신
1998.12	대통령에 출마해 최연소 당선
1999.12	'볼리바리안 헌법'으로 불리는 신헌법 제정
2000.7	임기 6년 대통령에 재선
2002.4	군부 쿠데타로 실각 후 복귀
2006.12	3선 성공, 베네수엘라식 사회주의 천명
2007.12	연임 제한 철폐 국민투표 패배
2009.2	연임 제한 철폐 국민투표 승리
2011.6	쿠바 방문, 암수술
2012.3	암 재발 인정
2012.7	암 해방 선언
2012.10	4선 성공
2012.11	쿠바 방문, 4번째 암수술
2013.3.5	'차베스 사망' 정부 공식 확인

자료: AP·AFP통신.



II. 정치 및 대외관계 분석

1. 차베스 사망 후 정치동향

□ 차베스가 지명한 후계자인 마두로 부통령이 임시 대통령직 수행

- 차베스는 2012년 12월 본인 유고시 마두로 부통령을 후임 대통령으로 선출 시켜줄 것을 국민에 당부했으며 헌법에서 정한 임시 대통령인 카베요 국회 의장 대신, 마두로 부통령이 오는 4월 14일로 예정된 재선거 전까지 임시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음.
- 차베스의 유고는 베네수엘라 정치에 큰 공백으로 작용하나, 차베스가 4선 당선 이후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은 상태여서 급격한 충격은 없는 상황임. 금년 1월부터 임시 대통령직을 수행한 마두로 부통령이 계속해서 행정 수반을 수행하여 재선거 이전까지 정치적 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2. 차기 정권 시나리오

□ (시나리오 1) 여당의 정권 재창출 및 차베스의 정책 계승

- 차베스의 후계자인 마두로 부통령을 앞세운 집권당 베네수엘라 통합사회당 (PSUV)이 정권 재창출에 성공할 경우 차베스의 정책들을 충실히 계승함으로써 차베스 지지계층을 흡수하고 사회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됨.
- 마두로 부통령은 차베스의 모든 정책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라미레스 석유부 장관 겸 PDVSA 사장 역시 석유산업 정책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힘.
- 차베스 사후 베네수엘라 정부는 미 대사관 소속 공군 관계자 2명을 간첩 행위 혐의로 추방하는 등 반미행보를 보임. 이는 대선을 앞두고 지지세력의 이탈을 막기 위한 것으로 분석됨.
- 단기적으로 안정적인 정권 재창출을 위해 차베스식 정책을 보다 강화할 것으로 보이나, 중장기적으로 차베스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차기 정권이 안착하면



경제적 필요에 의해 석유산업 정책, 반미주의 등의 주요 정책에 실용주의적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음.

□ (시나리오 2) 정권교체 및 친기업·친서방 정책으로의 전환

- 야권통합연대(MUD)의 대선 후보인 카프릴레스 주지사가 당선되어 정권교체에 성공할 경우 친기업·친서방적 정책변화가 예상되나, 국내 사회복지정책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카프릴레스 주지사는 기업 국유화 정책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며 집권시 페트로카리브 회원국, 특히 쿠바에 대한 저가의 석유공급을 중단하겠다고 공약함.
 - 정치적 비용을 고려할 때, PDVSA에 대한 구조조정이나 사회복지정책 축소는 어려우며 차베스의 포퓰리즘적 사회정책들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차베스에 대한 주도 분위기, 여당의 입법·행정·사법 및 군부 장악, 차베스식 정책의 제도화로 인해 단기적이고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정책 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음.

□ (시나리오 3) 군사 쿠데타 등으로 합법적인 차기정권 창출 실패

- 차기 대선 결과에 따라 군부가 반발, 쿠데타를 일으키는 등 합법적인 정권 창출이 실패하고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한 것임.
 - 베네수엘라 군부는 마두로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그 외의 당선자가 나올 경우 협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힘.
 - 이 경우 정치적 혼란에 따라 당면한 경제문제 해결이 지체되고 차베스식 정치이념이 단기적으로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표 2> 유력 대통령 후보 비교

	마두로 부통령	카프릴레스 주지사
소 속	베네수엘라통합사회당(PSUUV)	야권통합연대(MUD)
성 향	좌파·반미 차베스식 정치이념(Chavismo) 추구	중도좌파·친기업 브라질 룰라 전대통령의 실용좌파 추구
경 력	버스기사, 공공운수 노조 2000년 국회의원, 국회의장 2006년 외무장관	변호사 1998년 최연소 국회의원 2000년 바루타시 시장
특 징	차베스가 직접 지명한 후계자 (국회의장 및 군부 지지 선언)	2012년 대선 45% 득표 (역대 차베스의 상대 중 최대)

3. 대외관계 현황 및 전망

□ 미국과의 관계

- 차베스는 강경한 반미주의를 견지하여 미국과의 외교관계가 악화되었으며,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대 이란 석유협력에 대한 경고로 2011년 PDVSA에 대해 제재조치를 부과하는 등 양국은 정치적으로 대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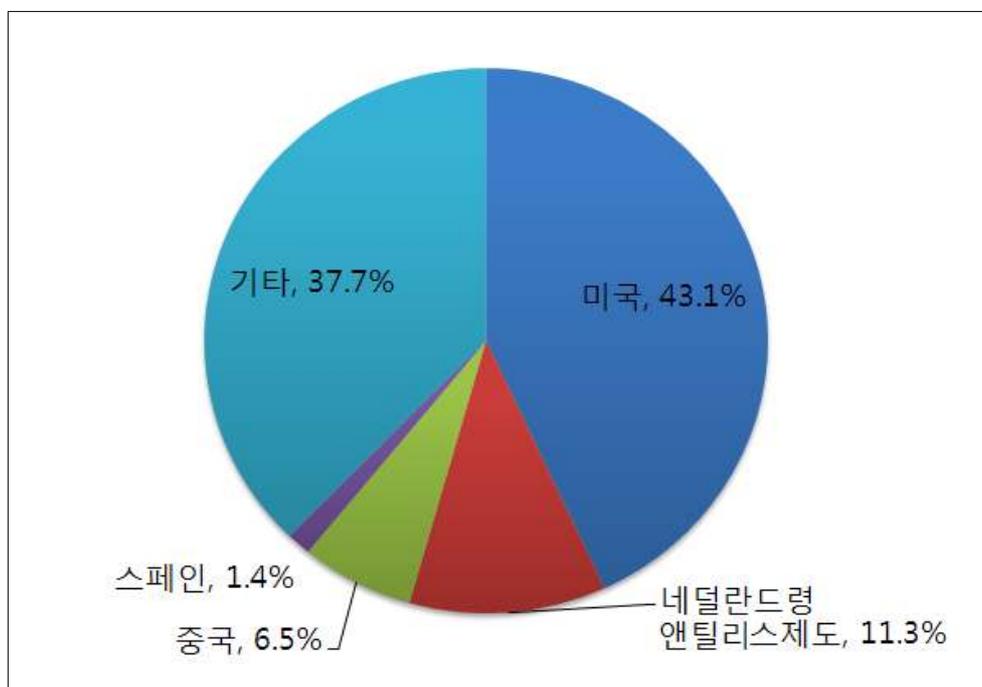
<표 3> 미국-베네수엘라 주요 사건
(2002~2013년)

연 도	사 건
2002년	차베스, 미국이 반 차베스 쿠데타를 지지했다며 비난
2005년	미-베네수엘라, 공조해온 '마약과의 전쟁' 중단 베네수엘라 주도로 미국이 추진해온 전미자유무역협정 저지
2008년	베네수엘라, 미국 대사 추방
2010년	베네수엘라, 신임 미국 대사 부임 거부
2011년	미국, PDVSA 제재 조치 부과 베네수엘라 국회, 대 미국 비난성명 채택
2013년	베네수엘라, 차베스 사후 미 공군 관계자 2명 추방 미국, 베네수엘라 외교관 추방



- 정치적 대립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경제적으로는 석유를 중심으로 활발한 교류를 지속함.
- 베네수엘라는 2012년 기준 미국의 12위 수입상대국(석유는 4위)이며,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자국이 사용하는 원유의 10%를 수입하는 등 베네수엘라의 최대 수출상대국임.

**<그림 2> 베네수엘라의 주요 수출상대국 비중
(2011년 기준)**



자료: EIU

- 차베스 대통령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3월 5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국민에 대한 지지와 베네수엘라 정부와의 건설적 관계 발전에 대한 관심을 재확인한다’는 성명을 발표함.
- 미국 입장에서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석유산업 재진출, 미국에 마약을 공급하는 베네수엘라 조직 검거, 이란에 대한 제재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베네수엘라와 협력할 이유가 있음.



- 그러나 베네수엘라 차기 정부의 성향에 따라 양국 관계 개선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 다만, 베네수엘라의 경제상황 및 미국으로부터의 외화수입 비중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경제부문을 중심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 지난 3월 12일 라미레스 석유부 장관이 미국에 대한 석유 수출은 안정적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밝혀 양국 관계는 단기적으로 현 상황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베네수엘라 차기 정권에서 양국이 대사를 파견할지의 여부가 정치적 관계 개선을 가늠하는 일차적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임.

□ 중국과의 관계

- 중국은 차베스 정권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중국개발은행은 2008년 이후 베네수엘라에 465억 달러의 차관을 지원하였음. 이 금액은 베네수엘라가 같은 기간 확보한 차관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로, 베네수엘라는 중국개발은행의 최대 차관 공여대상국임.
- 차베스 사망 후 중국은 현재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혔으며, 베네수엘라 또한 중국의 차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정권교체 여부와 무관하게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베네수엘라에 어떤 차기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중국과 베네수엘라의 우호 관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보도함.

□ 중남미 주변국과의 관계

- 차베스의 집권기간 중 베네수엘라는 볼리바르 동맹(ALBA), 페트로카리브(PetroCaribe) 등 중남미 지역기구를 창설하고 주변국에 대해 저가 석유공급을 통해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영향력을 발휘함.
- 야당통합연대(MUD)에 의하면, 차베스 정부는 2000~2011년 중 중남미 40개국에 약 424억 달러를 지원함.
- 베네수엘라는 쿠바에 GDP의 40%에 해당하는 원조를 제공했으며, 에콰도르·



볼리비아·니카라과에도 매년 35억 달러 이상의 석유를 저가에 수출하면서 이들 나라의 좌파 정권을 지지함.

- 베네수엘라 경제 악화 및 차베스의 사망은 중장기적으로 페트로카리브 회원국 앞 석유지원 축소, 중남미 지역에서 베네수엘라의 영향력 감소와 브라질 및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III. 석유산업 현황 및 전망

1. 석유산업 현황

□ 세계 1위의 석유매장량 보유, 생산량은 11위 수준

- 베네수엘라의 확인 석유매장량은 2,965억 배럴로 세계 1위(전체 매장량의 18%)이며, 석유산업이 수출의 95%를 차지하고 정부예산의 60%, GDP의 30%를 차지하는 등 석유산업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매우 높음.
- 투자 위축, 외국계 기업의 철수 등으로 생산 효율성이 저하되면서 2011년 베네수엘라의 원유생산량은 1일 평균 272만 배럴을 기록함. 이는 차베스가 처음 대통령에 당선된 1998년의 348만 배럴에 비해 22% 감소한 수준임.

<표 4> 주요 산유국 석유 매장량·생산량 비교

단위: 배럴

국가	확인매장량 (순위)	1일 생산량 (순위)	
		1998년	2011년
베네수엘라	2,965억 (1위)	348만 (6위)	272만 (11위)
사우디아라비아	2,654억 (2위)	945만 (1위)	1,116만 (1위)
이란	1,512억 (3위)	386만 (4위)	432만 (4위)
이라크	1,431억 (4위)	212만 (14위)	280만 (10위)
쿠웨이트	1,015억 (5위)	223만 (12위)	287만 (9위)
러시아	882억 (6위)	611만 (3위)	1,028만 (2위)
세계	16,526억	7,344만	8,358만

자료: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2'.



□ 석유산업에 대한 통제 강화로 투자 위축

- 차베스 정권에서 PDVSA는 페트로카리브 회원국에 대한 저가의 석유 제공, 막대한 정부지출 자금 지원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함. 베네수엘라는 석유 산업에서 나오는 수익의 상당 부분을 정책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어 재투자 활동은 상대적으로 위축됨.
- 2011년 PDVSA의 매출액은 1,239억 달러로 이중 약 240억 달러(19%)가 로열티와 세금이었으며, 약 300억 달러(24%)는 차베스의 비자금으로 축적됨(Reuters).
- 2006년 신 석유법 제정으로 외국인 투자환경이 크게 악화돼 엑슨모빌(Exxon Mobil)과 코노코필립스(Conoco Philips)가 베네수엘라 석유사업을 포기하는 등 정책리스크로 인해 외국계 기업들의 투자가 축소된 상태임.
- 신 석유법은 외국계 기업이 베네수엘라 석유산업 투자시 반드시 PDVSA와 합작회사 형태로 투자하면서 PDVSA가 지분의 최소 60%가 되도록 하여 기존의 외국인 투자지분의 상당부분을 국유화함.
- 또한 외국계 기업에 33%의 로열티와 최소 50%의 법인세를 적용하며, 경영상 이견 발생시 베네수엘라 국내사법부에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함.

2. 석유산업 정책변화 전망

□ 단기적으로 석유산업 정책은 현행 유지 예상

- 차베스 사망 후 라미레스 석유부 장관은 석유산업 관련 정책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며, 차기 정권과 석유산업 정책 방향이 확정되기 전까지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 마두로 당선시 석유산업 정책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카프릴레스 당선시에도 정치적으로 PDVSA의 구조조정이나 사회복지정책 축소가 어렵고 주요 정책 변경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차베스 사망이 단기적으로 석유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됨.



- 국제유가 또한 차베스 사망에 특별한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차베스가 사망한 지난 3월 5일 미국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배럴당 0.7달러 올라 90.82달러에 거래됐으며, 이후 미국 증시 강세 및 경기지표 호조 여파로 상승세를 지속하여 3월 18일에는 93.74달러를 기록함.

□ 중장기적으로 석유산업 수익성 증대 필요성에 의한 점진적 정책변화 가능

- 차베스의 집권기간 동안 계속된 막대한 정부지출, 주변국에 대한 저가의 석유 공급 및 석유 생산량 감소 등으로 베네수엘라는 외환보유액 고갈 및 정부채무 상환 부담 문제를 겪고 있음.
- 2012년 10월 대선을 앞두고 정부예산을 25% 증액하여 2012년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7.4%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정부는 재정수지 적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3년 2월 불리바르화를 32% 평가절하함. 이로 인해 20%대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표 5> 베네수엘라 주요 경제지표

단위: 달러

구 분	2009	2010	2011	2012 ^e
경제성장률	△3.2%	△1.5%	4.2%	5.6%
재정수지/GDP	△8.1%	△5.9%	△5.4%	△7.4%
정부채무/GDP	18.2%	18.3%	25.1%	27.3%
소비자물가상승률	27.1%	28.2%	26.1%	23.3%
외환보유액	217억	131억	99억	66억
총외채잔액	599억	613억	679억	745억
총외채/GDP	18.2%	15.6%	21.5%	19.5%

자료: IMF 및 EIU.



-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차기 정부가 석유산업의 수익성을 이전처럼 무시하기는 어려우며,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자금 및 기술력 투입을 통한 탐사·생산·정제능력 확충이 필요함. 따라서 정권교체 여부와 무관하게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점진적인 정책변화가 전망됨.
- 2009년 PDVSA는 오리노코 벨트³⁾에 합작법인으로 진출하는 외국계 기업들에게 의결권 확대, 경영상 이견 발생시 국제분쟁기구 제소 등의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함. 이에 따라 중국과 인도, 일본, 러시아, 미국, 스페인, 베트남이 PDVSA의 파트너로서 오리노코 벨트에 투자하고 있음.

IV. 우리나라와의 관계 및 시사점

□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는 미미한 수준

- 2012년 한국-베네수엘라 교역규모는 약 6억 달러이며, 베네수엘라는 한국의 수출상대국 70위, 수입상대국 87위에 해당함.
-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교역규모가 급감하였으나 2010년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8~2012년 중 평균 교역규모는 6.6억 달러 수준임.

<표 6> 한국-베네수엘라 교역규모

단위: 억 달러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주요품목
수 출	7.3	3.5	6.4	6.1	5.2	자동차부품, 원동기 및 펌프
수 입	0.2	0.3	1.2	1.4	1.1	석유제품, 합금철, 알루미늄

자료: 한국무역협회.

- 우리나라의 대 베네수엘라 직접투자 규모는 2012년말 누계 기준으로 11건, 67백만 달러 수준으로 투자분야는 1차 금속제조업, 건설업에 집중되어 있음.

3) 베네수엘라 최대의 유전지대로,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의하면 이 지역에 최대 5,130억 배럴의 초중질유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됨.



□ 베네수엘라 정세 변화에 따른 대응 및 진출가능성 검토 필요

- 현재 우리나라와 베네수엘라 간의 경제교류 규모, 중립적인 양국 관계를 고려할 때, 차베스 사망이 우리나라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의 석유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어 유전개발 참여, 대형 프로젝트 수주 등 자원협력을 위한 진출 필요성이 높으므로 정세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차베스 사망후 베네수엘라의 정책 변화를 단기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나 석유산업, 반미주의 등 주요한 정책의 일부 완화가 예상되는 만큼 정세 변화를 주시하여 진출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09년 3월 라미레스 석유부 장관이 방한하여 양국간 석유 및 가스 탐사·개발·생산 공동협력을 위한 자원협력 MOU를 체결했으며, 2012년 대우건설, STX건설, 현대건설이 석유수출시설 및 정유플랜트 건설사업을 수주하는 등 우리 기업의 베네수엘라 석유산업 진출이 확대되고 있음.

문의 : 해외경제연구소 국별조사실
조사역 이주은 (3779-5712)
june@koreaexim.go.kr